

# 새싹 편지

2011.1.2월호



## Woosong News

- 모의토익
- 2010학년도 학과 연수
- 2011학년도 예비대학

## Our Story

- 1, 2학년이 함께
- 1학년 과대표들의 마음가짐
- 다른학교 유아교육과에선..
- 2010년을 마치며



### 모의 토익



1월 20일 목요일. 겨울학기가 끝이 나기 5일 전 몇일 남지 않은 겨울학기이면서, 학생들이 그동안 토익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우송대학교에서는 1학년을 상대로 LC 모의토익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날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200문제 중 100문제가 LC이기 때문에 듣기는 그나마 자신 있다며 설레어 하고 있었습니다.



모의토익은 1시부터 이루어 졌으며 총 200문제 중 100문제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진도까지를 시험 보았습니다. 시험시간은 LC이기 때문에 40분가량 이였고, 학생들은 마지막 100번째 문제가 끝이 났을 때 마음을 놓고 일찍 끝나서 기분이 좋으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모의토익을 보고 나오는 학생들의 표정은 그동안 공부한 만큼 의 실력을 보여줘서 기분이 좋다는 표정을 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실망감과 아쉬움의 표정들을 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직 기말 고사가 남아있지만 겨울학기가 정말 끝나는 기분이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 2010학년도 학과 연수

2010년 1월 26일 유아교육과 1,2학년 학생들은 일본 오사카 및 오카야마현으로 국제화 프로그램 연수를 떠났습니다. 학교지원금과 자비로 떠난 일본연수에서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의 첫날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키즈 플라자에서 여러 유아교육관련 교수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보고 일본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둘째날은 신애여자학원 부속 유치원과 오사가 보육원을 방문하여 일본의 시설들을 보고 한국과 다른 점, 유사한 점, 한국에 도입할 점등을 보고 사진도 찍고 정보들을 적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의 간단한 토론과 토의, 발표 시간을 가지면서 한층 더 깊은 연수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자매대학인 오카야마 현립 대학으로 가서 보육교사양성과정의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일본과 한국의 유아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고 대학의 기관을 둘러보고 보육교사양성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문화도 교류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박 4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환경, 제도, 시설들을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2011학년도 예비대학

2011년 2월 19일 토요일, 우송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1학년도 우송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예비대학은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 한데모여 만남의 기회도 갖고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신입생들의 뛰어난 외국어 실력으로 2011학년도의 다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점심식사 후 토익, 컴퓨터등의 테스트가 이루어 졌습니다.



가수 '클론'의 강원래의 특강으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현실을 인정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뷔페음식을 먹으며 저녁식사를 한 후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의 치어리더 공연과 일명 '삼촌 비보이'로 불리는 비보이들의 공연을 감사하며 2011년도 2월 19일에 열린 2011학년도 우송예비대학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대학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21세기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대학생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Our Story



## 1,2학년이 함께

오는 12일 수요일 12시 유아교육과 1.2학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솔파인에서 점심을 먹는 행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날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솔파인에 모여 메뉴를 기다렸습니다. 친구들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밥을 먹는다는 즐거움과 함께 M.T, 체육대회 이후로 1.2학년이 함께 모이는 뜻 깊은 자리였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서로 친해진 선후배 사이에서는 반갑다는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2학년 학생들은 친한 학생들과 모여 앉기 보다는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또 서로서로 점심메뉴가 무엇일지를 예측하며 설레어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메뉴는 해산물 덮밥 이였고 메뉴가 나오자 마자 스테이크가 아니고 실망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맛을 본 학생들은 맛있다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1.2학년 이였지만 1학년 학생들은 수업이 1시부터였기 때문에 2학년 학생들과 다시 만날 것과 안부의 인사를 하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학생들은 음식이 맛있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언제 이런 분위기 있는 곳에서 먹어 보겠냐, 또는 분위기에 메뉴가 너무 맞지 않았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보다는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 이었습니다.



## 1학년 대표들의 마음가짐

A 반대표 김수정:

우선 2010년도에는 1학년이어서 나도 잘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2011년도에는 작년에 느꼈던 부족한 점들을 더 보완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학년이다 보니 이제 학점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학과 내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유아교육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들어올 후배들에게 대학에 로망을 가지고 입학할 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 과 일이 힘들지 몰라도 함께 즐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노는 것도 최고가 되는 유아교육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에게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것들에 대해 너무 고맙고, 2011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A반이 되어서 유아교육과의 주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B 반 과대표 이민지:

우선 2학년 때는 전공과목이 많아지니까 더 공부 많이 해서 성적을 올려야겠어요. 또 이제 11학번 후배들도 들어오니까 모범도 보여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1학년 후배들한테 더 좋은 것,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과대로서 과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솔선수범해서 B반 뿐 만 아니라 우리 유아교육과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1학년에 우송대 유아교육과에 들어온 만큼 자부심을 갖고 선배들, 동기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 1학년 때는 논다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성적관리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장학금 받는 좋은 방법들 많으니까 잘 알아봐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교양과목이라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과 행사나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해서 선배들과도 친해지고, 우리 과에 들어온 만큼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워서 알찬 대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 다른학교 유아교육과이선.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늦깎이에 들어온 43살 10학번 김정숙 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부터 꿈이 유치원 교사였는데, 공부를 뒤늦게 시작해서 사회복지과와 유아교육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나마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어린이부교사를 하는 내 자신이 보였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해서 유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를 지원 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지 생각했던 것 보다 유아교육과 에서 배우는 것도 너무나 많고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또 저는 유아교육과 학생이기 전에 주부이고 아이들에 엄마이기 때문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로서 알고 있는 유아의 대한 지식과 학교에서 배우는 유아의 지식은 너무나도 다르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 이였습니다. 또 갓 들어온 20살 학생들과 음악수업이나 미술수업을 하려니 세월 탓인지 공부의 벽이 높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10학번의 20살 학생들과 지내다보니 제일 먼저 세대차이가 많이 나지만 생각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개방적이라 담배나, 술을 쉽게 하는데 어른으로서 충고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라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뒤늦은 공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하지만 10학번학생들은 저만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편한적이 가끔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유치원교사가 되거나, 원장이 된다면 꿈을 심어주는 유치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고 아이들이 어디까지나 동심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유아가 뭐든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유치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제 생각 일지도 모르지만, 요즘 학생들 중 정말 아이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유아교육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직을 목적으로 유아교육과를 선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힘들어 합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램 이 있고, 지금 유아교육과에 진학중인 학생들은 뒤늦게 공부하는 나도 있으니, 자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말고 졸업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원장이 되거나 교수가 되어도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지금 초심 그대로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 좋은 선생님 되어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2011년을 마치며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송대 유아교육과는 올해로 3번 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설된 학과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치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유아교육과는 정시모집에서도 7.85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입지를 굳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새해를 맞는 기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우선 다들 입을 모아 좀 더 학점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유아교육과에 합격발표를 듣고, 우송대에 입학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지났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허탈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해가 바빴던 만큼 보람찼던 한 해였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도 분발해서 좀 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야겠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새내기가 아닌 2학년 선배가 된다는 것에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 학생은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얼떨떨한데 어느새 1년이 지나서 선배가 된다니 조금 이상해요. 하지만 후배들이 유아교육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 이맘 때 즈음에는 1년 동안 이루기로 했던 계획이 많았었는데, 어느 새 1년이 지나버려서 그 계획을 자꾸 미뤄서 이루지 못했더라며, 이번 2011학년도에는 꼭 연초에 세운 계획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 후배들에게 이제 뜻뜻한 20살을 넘겨주기가 너무 아쉽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맞는 2011년도이지만, 모든 학생들이 모두 분발하여 올 한해도 돌아볼 때,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모두가 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 유아 상식

## 운동발달의 법칙

일반적으로 운동발달에는 일정한 법칙이 인정되어 있고, 이것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보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운동발달의 법칙이란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태아 및 신생아의 운동발달은 두측에서 미측의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2. 근위단에서 원위단으로 운동발달이 진행합니다. 즉 중추부의 큰 관절에서 말초부의 작은 관절로 진행됩니다.
3. 손의 척측으로부터 요측방향으로 운동은 발달해 갑니다.

최근에는 4번째 법칙으로서 거론되는 것에 상반성 신경지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하한 운동이라도 그 발달의 시기에 있어서는 서로 길항 혹은 대립하는 동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며, 굴곡에는 신전, 양측성에는 단측성, 가동성에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식의 합작이 그 예입니다.

미소담은 재활 연구소

## 숨은 그림 찾기



찾을 그림

고추/긴뿔/연필/8분음표/버선/가위

## 4단 만화



이상한 냄새

By. 도바기

### <발행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http://childedu.wsu.ac.kr>  
042) 630-936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300-71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 <만든이>

- \* 박민정 \* 안선경 \* 이예지
- \* 김연수 \* 문진아 \* 송하나 \* 박혜령
- \* 김민아 \* 이은정 \* 조아름